



임무택 대건안드레아 작

빛고을

2021. 10. 24. **연중 제30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주일)

지친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 님 은 민 족 들 의 눈 앞 에 당 신 정 의 를 드 러 내 셧 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복음 선포는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소풍’

오 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발현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축제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 선포의 축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독려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이사 2,3).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선포는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소풍이고,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가는 축제입니다.’ 이보다 더 신명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이사 52,7).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선 먼저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상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아멘.



노성기 루보 신부
노대동 본당

新요리문답

40. '성인들의 통공'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것들’(sancta)의 공유와 ‘거룩한 사람들’(sancti)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친교를 가리킵니다. 이 친교로서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960-963 참조).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론 1

첫 시간은 바오로 서간을 읽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래 성경 연구의 가장 큰 이슈는 ‘독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실재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실제 공동체에 전해져 읽혔을 것입니다. 현대 성경 해석학은 이러한 역사적 실재 독자와 다른, 바오로의 편지 내에 존재하는 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상적’ (혹은 ‘내적’, ‘함축적’) 독자라 일컫는데, 바오로가 편지를 쓰며 염두에 둔 독자의 모습을 지칭합니다. 가령, 연애편지를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필자는 관심 있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편지를 받아 읽는 이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읽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필자가 편지를 쓰며 의도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상적’ 독자입니다. 이것은 편지의 실제 수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읽는 이는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바오로 연구학자들은 ‘이상적’ 독자와 ‘실제’ 독자를 구분해야 하며, 갈라티아서를 ‘이상적’ 독자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편지가 쓰여질 무렵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편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바오로는 분명 ‘이상적’ 독자를 염두에 두며 편지를 정성껏 작성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하여 갈라티아서를 읽을 것입니다.

‘이상적’ 독자 입장에서 갈라티아서를 읽는다고 해서 ‘실제’ 독자, 즉 갈라티아 공동체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티아서는 바오로의 문학적 창작물이 아닌 실재했



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기에 갈라티아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주된 사안은 방법론입니다. 과거의 성경 연구는 갈라티아서에 등장하는 몇 단어(예 : 할례와 육 등)에만 치중하여 역사적 상황을 추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의 메시지가 보다 충실히 읽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표현들이 서간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티아서는 당시 신앙 공동체의 문제점을 묘사하기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적’ 독자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갈라티아인들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오로의 논증 방법을 살펴본 후, 갈라티아 공동체의 실제 삶이 어떠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남 가브리엘 신부
학다리 본당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4,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힘을 체험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깨달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 구원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 22,9).

사도들의 체험

주님과 나누는 우정 안에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시며, 더러운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하며, 참행복을 알려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기며 경이로움과 커다란 기쁨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요한 4,19 참조)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릴 때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보건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목으로 무관심과 냉담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유혹이 생길 때, 필수적인 거리 두기 조치를 만남과 돌봄과 증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비의 사명이 긴급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사도 4,20), 곧 우리가 체험한 자비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자 신뢰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화를 쏟아야 할 소속감과 연대의 공동체”(「모든 형제들」, 36항)를 세우고자 하는 공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받은 초대

해마다 거행하는 전교 주일에, 우리는 너그럽고 기쁨 넘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는 세례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며 도와주는 모든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떠나 구원의 메시지에 목말랐던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연히 나서는 모든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소명이 과거의 일이거나 이전 시대의 낭만적인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요

즈음과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시대에 우리 삶의 반경을 넓히고, 우리의 “관심권”(「모든 형제들」, 97항)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는 다른 이들이 비록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날마다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에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도 기꺼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기꺼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우리가 모두 참된 선교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제자이신 성모님께서 세례 받은 모든 이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열망을 키워 주시기를 청합니다(마태 5,13-14 참조).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QR코드스캔 [담화전문보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엄마로 만난 세상 「엄마 일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은 엄마! 곁에 있어도 자꾸 부르고 싶은 이름입니다. 뒤늦게 철이 든 저는 엄마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드리려 했더니 어느새 엄마는 너무 작아지고 가벼워져,

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셨죠. 엄마라는 존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의 자리를 간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을 소환하는 육아 에세이, 「엄마 일기」는 처음 경험해 보는 ‘엄마의 자리’가 낯설고 두려웠던 소소한 순간들까지 포착해내며 기록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자 이지혜 작가는 「가톨릭평화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양육하는 과정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섬세하고 다정한 필력으로 펼쳐놓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태아의 생명이 자기 몸 안에서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출산, 양육하는 과정을 3부로 엮었습니다. 1부 ‘안녕 평화야,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에서는 임신의 순간부터 ‘엄마라는 새로운 세상의 눈으로 보고 느낀 깨달음, 2부 ‘나는 바깥양반 남편은 안사람’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편과 엄마이며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저자의 체험 이야기, 3부 ‘토닥토닥, 참 수고했다’에서는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과 아이를 통해 새롭게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말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의 뒤척임에도 민감해지는 일이다.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나는 얼마나 작아지고 투명해져야 할까”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저자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독자에게 건너오는 순간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지켜내야 하

는 부부가 분담해야 하는 몫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자 부부는 겪어내야 할 이 현실적 고통까지도 토닥토닥 아기를 잠재우듯,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역할이 바뀌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선하고 부지런한 부부의 노력 가운데 아이의 성장 단계마다 드러나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아이의 그전 모습을 늘 떠나보낸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눈길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마음도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초조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느님의 손길과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엄마의 역할이 고맙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고 가정을 꾸리려는 젊은 예비부부들에게는 용기와 도전을 불러일으켜 줄 에세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주어야 하는 귀한 존재들이고 보면 엄마와 아빠는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제게 특별히 마음에 남았던 문장을 함께 나눕니다.

“엄마가 된 지 딱 5년이 됐다. 나와 완전히 다른 타인을 맞아들이며, 내 삶을 견고히 지키고 있던 삶의 형태와 뼈대를 지속적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돌이켜 보면, 아이가 텃줄을 끊고 내 품에 안겨 잘 성장해 온 것이 나의 헌신과 노력,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사실 전혀 아니다. 처음부터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닌 주어진 선물이었다. 아이가 뛰논 흙바닥과 볼을 스친 바람과 태양, 시간이 아이를 키웠다. 하느님은 희생과 환희, 고통을 거름으로 쓰셨을 뿐이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눈부신 과정들을 볼 기회도 주셨다”(본문 177-178쪽).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10월 24일 건진(노대동)
10월 26일 사제평의회
10월 28일 제회 감대중평화회의(강의)
10월 29일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내이팅게일제
10월 31일 건진, 사목방문(봉선2동)



총대리 주교님 동정

10월 24일 건진(삼학도)
10월 26일 사제평의회
10월 29일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내이팅게일제
10월 31일 건진, 사목방문(원동)

사목국

선택월미사

일시 : 10.28(목) 20: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경당
대상 : 선택주말을 수료한 모든 분
문의 : 010-9030-3908

카나혼인강좌

일시 : 10.31(주일) 12:30-18: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대건문화관)
수강료 : 2인 3만 원
계좌 : 농협 601135-55-000431
광주구천주교회(카나혼인)
신청 : www.gicatholic.or.kr → 참여마당
문의 : 가정담당 062) 380-2834
※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인원을
20쌍으로 제한합니다.

성소국

교구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1.13(토) 10:30
장소 : 교구청 성당
대상 : 성소후원회 회원, 신학생 부모님,
예비신학생 부모님
문의 : 062) 380-2280~1

관리국

위령의날 미사 안내

일시 : 11.2(화) 11:00
장소 : 담양공원묘원 담양군 월산면 소재
미사 : 김희중 대주교
문의 : 묘지운영위원회 062) 227-7124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토 (재방송) 16:50-17:00]

10.25(월)-27(수) 김기수 신부(두암동 본당) / 10.28(목)-30(토) 김경주 신부(신기동 본당)

방송 미사 [10.24(주일) 19:00-20:00] 화정3동 본당 (집전 : 김수만 주임신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도미니(Fiat Domini) 소년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주제 :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 '평화와 선(善) 그리고 희망'
일시 : 11.15(월) 19:30 / 장소 : 주교좌 임동상당
무료 관람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람 인원의 제한 및 공연일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 문의 : 062) 231-7700

방송국 개국 25주년 기념 후원회원 초청 '평화음악제' -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출연 : 가수 알리, 고영열, 박강수, 김연자, 그룹 부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
일시 : 11.3(수) 19:30 / 장소 :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지붕위에서 외쳐라' 후원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성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 문의 : 062-381-9004)

가톨릭목포성지, 흑산 성당 성지순례(홍도포함) 1박 2일 / 매주 화요일 출발 / 광주 출도착 기준 26만 원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캘러리 현 책더하기사랑 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날! 알아야 산다!

법은 우리의 탄생부터 마지막 사망 판정의 순간까지 전 생애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웬
어부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사건과 판례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법 적용, 그 죄의 성격 분석을 재미있게 풀어나감으
로써 법률적 지식과 이해가 향상되어 일상 생활에 실질적 도움과 힘이 되고자 합니다.

- 기간 : 10.26-12.28 매주 화 14:00-16:00 - 수강료 : 10만 원
- 강사 : 이성연 (광주YWCA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서울환경연구소 전문위원 역임)

갤러리 현 전시 안내 '성프란치스코와 그의 친구들 - 두 번째 이야기'

일러스트 박원희 사라 자매는 로마 국립미술원 장식미술과 전공으로 이탈리아
와 유럽 가톨릭 성지순례 가이드로 활동하였습니다. 가이드로 활동하면서 만나
게 된 이탈리아의 수많은 성화들은 하나 같이 고통스럽고 어두웠지만 고통만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눈물보다는 웃음을, 고통보다는 감사함을, 혼자보
다는 형제애 안에서 이뤄지는 공동체를 꿈꿔 왔던 성인을 그리고 아시시에서
만났던 수도자들의 밝고 친절했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 작가 : 박원희 사라 - 전시기간 : 11.15(월)-11.28(목)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 교육문의 : 062) 380-2210~5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021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플랫폼 안내

<카리타스나눔천사 꿈꾸라에 초대합니다.>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
동을 펼치는 개인(단체)이 지속적, 체계
적 복지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 통합 인적자원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모집대상 :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자
(단체)
- 기간 : 10.29(금)까지
- 문의 : 062) 510-2883

2021년 후원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 후원 안내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집수리를 지
원하여 우리 이웃이 삶의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자 따뜻한 마음나눔을
가다립니다.

- 집수리 세대
누수로 감전과 화재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 세대
휠체어 이용마저 쉽지 않은 장애인 세대
잠금장치와 난방이 어려운 한부모 세대
- 마음 나눔 (입금계좌와 1004로 후원)
농 협 : 350-17-001207
광주은행 : 601-107-002812
- 문의 : 061) 272-2395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확인하세요.



기관 · 단체

엠마우스 40주년 후원회 미사

일시 : 10.30(토) 10:00
장소 : 엠마우스복지관
문의 : 062) 528-7701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1.4(목) 09:15-13:00
주제 : 포스트 팬데믹과 가톨릭 시민
강사 : 조민아, 경동현, 강신숙
유튜브 생중계 : <https://ti.gj catholic.ac.kr>
(신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연결)
문의 : 061) 339-2231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2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입학 전형 : 12.6(월) 14:00
원서 접수 : 11.1(월)-12(금) 17:00
문의 : 대학원교학팀 02) 2258-7076
교과 02) 2258-7107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 11.1(월)-26(금)
모집인원 : 6명
대상 :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문의 : 홈페이지 참조 061) 432-9241

살레시오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 : 11.4(목)-8(월), 전주교신자
일반전형 : 11.10(수)-15(월)
문의 : 홈페이지 참조 062) 227-1292

안동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일시 : 11.8(월)-22(월)
문의 : 054) 851-3021, www.csj.ac.kr

돈보스코나눔의집 직원 채용

장소 : 살레시오수도원(신안동)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외
참고 :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구인정보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 12.14(화)까지
접수 :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문의 :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 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수도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목포 : 10.26(화) 10:00 대성동 성당
순천 : 10.27(수) 10:00 저전동 성당
광주 : 10.29(금) 15:00 골롬반 선교회관

성모승천수도회 성소안내

일시 : 상시 / 장소 : 성모승천수도회(쌍촌동)
문의 : 010-3771-5098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안내

일시 : 언제든지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길 22-14
문의 : 061-382-2214, 010-4853-2114

군중후원회 성탄위문품 전달

교구 군중후원회에서는 금년
성탄 때에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탄위문품을 보내고자 합니다.
위문품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11.2(화)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9시 주모경 바치기

(밤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에)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를 함께 바치기 바랍니다.

성 골롬반외방선교회 진요한신부 선종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진요한(Sean Brazil) 신
부님 (향년 89세)께서
2021년 10월 8일 본국
인 아일랜드에서 선종하
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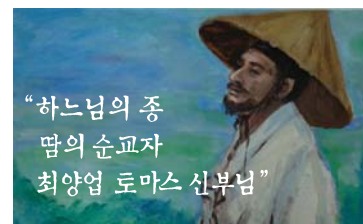


1954년 12월 21일 사
제품을 받은 신부님은 1955년 한국에
파견돼, 광주대교구 산정동, 흑산, 북교
동, 소록도성당과 서울, 수원교구 등에
서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1983년부터는
아일랜드와 미국지부에서 후원회, 선교
교육, 성소자 양성 등을 맡아오셨습니
다. 미사와 기도 중에 고인의 영원한 안
식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청년 축제'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시편 81,2)

- 일시 : 11.6(토) 12:00-18:00
-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및
평생교육원 일대
- 대상 : 청년이면 누구나
- 준비물 : 폐우산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쳐
신자들을 위해 걷고 걷고 또 걸으셨던
맘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많은 이들이 알고 본받고,
기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